

호주 시드니

글·사진 | 허용선, 건강칼럼니스트

시

호주의 가장 큰 도시이자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꼽히는 시드니는 아름다운 항구와 아름다운 자연환경,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도시이다. 세계 3대 비경의 하나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시드니의 상징이다. 세계 3대 비경 중의 하나로 2000년 하계 올림픽 개최 도시이기도 하다. 시드니는 이 외에도 호주-한국 경제 협회 창립 도시이며, 매년 1만 7800명의 한국인이 생활을 하기 위해 이 도시로 이주해 온다. 시드니는 자연미와 인공미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 높이 치솟은 마천루와 중세풍 건물들의 멋진 조화, 섬나라의 낭만과 시민들의 삶의 여유. 도시 곳곳에 펼쳐져 있는 녹음으로 우거진 공원 등이 이 거대한 도시를 맛깔스런 모습으로 만든다.

▲ 자연과 인공이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인 시드니의 모습.



▲ 점심시간에 시내의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드니의 여성. 쾌적한 도시환경이 시드니를 매력적인 도시로 만든다.

▲ 타워로 갔다. 높이가 3백24.8m인 시드니 타워는 정상까지 엘리베이터로 오르는 데 몇 분밖에 안 걸린다. 타워 전망대에서는 시드니 시내가 한 눈에 잘 들어온다. 모노레일 당일권을 사서 시내를 2바퀴 돌아보니 시드니에 대해 한층 친밀감이 느껴졌다. 이후 흥미로운 곳을 도보나 택시로 찾아갔다.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시드니는 이름난 환경단체에서 해마다 세계의 살기좋은 도시로 선정되는 곳이다. 미국의 세계적인 여행전문지 '월드 나스트 트래블러' 독자들은 5년 연속으로 시드니를 '세계 최고의 도시(World's Best City)'로 선정했고, '트래블 앤 레저' 지(誌)는 4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여행지(World's Best Value Destination)'로 시드니를 꼽았다.

시드니가 살기좋은 도시로 선정되는 이유는 자연미와 인공미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 높이 치솟은 마천루와 중세풍 건물들의 멋진 조화, 섬나라의 낭만과 시민들의 삶의 여유. 도시 곳곳에 펼쳐져 있는 녹음으로 우거진 공원 등이 이 거대한 도시를 맛깔스런 모습으로 만든다.



▲ 양증맞은 코알라. 일생동안 유칼리나무에서 사는 호주의 고유 동물이다.



▶ 시드니는 도시전체가 하나의 공원같다. 도심 곳곳에 드넓은 녹지대가 펼쳐져 있다.

영국에서 최초의 이주민인 유흥수들과 이들을 호송하는 간수들이 시드니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는 1788년이었다. 그 당시 시드니는 원주민인 애버리지니족이 수백명 정도 살고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그러나 2백년이 지난 지금 시드니는 4백만명이라는 많은 인구가 면면히 삶을 이어나가는 대도시가 되었다. 시드니는 호주의 6개 주 가운데 하나인 뉴 사우스 웨일스주의 주도(州都)인데 거주 인구보다도 더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 해마다 400만~500만명의 여행객이 시드니를 찾는 이유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자연환경을 빼놓을 수 없다. 남태평양이 내륙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곳곳에 그림같은 만(灣)과 꽃을 이룬 모습은 장관이다.

이탈리아의 나폴리,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와 함께 세계 3대 미항으로 꼽히는 시드니는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엄청난데 이렇게 된 큰 이유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시민들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광활한 녹지, 쾌적한 공기, 옛것과 새것과의 멋진 조화, 안정된 치안과 편리한 교통환경 등은 이 도시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시드니는 대도시지만 공원이나 녹지 비율이 50%에 가까운 대표적인 전원도시이다. 시내에서도 쉽게 드넓은 공원을 만날 수 있는데 더 도메인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애용되는 잔디공원이며 왕립식물원은 녹지 면적이 130만㎡에 달하는 큰 공원이다. 한낮에도 햇빛이 들지 않을 만큼 수목이 우거진 하이드파크공원은 시내 중심상업지역과 인접해 있어 점심시간 무렵이면 공원 곳곳의 벤치에서 한가로이 점심을 먹거나 조깅이나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로 붐빈다.

최근들어 시드니는 도시인구가 팽창하고 자동차 수요가 급증해 배기가스 배출량이 크게 늘고 대기오염을 심화시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도시로써 손색이 없으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도시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어 정부 당국에선 대책마련에 고심 중에 있다.

호주에서 문화와 교통의 요지인 시드니에서 으뜸가는 상징적인 건물은 오페라하우스이다. 1957 국제현상설계에 붙여진 결과 당선된 덴마크에 존 우트존에 의해 설계된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기하학적인 건축미가 돋보이는 오페라하우스가 완성된 후 예술의 전당으로써 호주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드높여 주었다. 마치 조개껍질을 포개어 놓은듯한 오페라하우스는 2천7백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오페라 극장을 비롯하여 드라

■ 세계의 살기좋은 도시

마 극장·영화관·음악스튜디오·아트 갤러리 등이 건물내에 함께 자리잡고 있다. 거의 매일 시드니가 자랑하는 풍부한 문화적 레퍼터리 영화·발레·연극·클래식·음악·오페라·록 콘서트가 이곳에서 공연된다.

시드니의 변화가는 조지 거리와 피트 거리이다. 이곳에서는 세계 일류상점과 레스토랑·카페·호텔 등이 널려있다. 주말이 되면 가족단위로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가정적인 호주인들은 퇴근 후 곧장 집으로 가기 때문에 저녁 무렵부터 도심은 한산해진다. 일요일 시드니 항구 앞바다에는 요트나 윈드서핑, 수상스키 등을 즐기는 시민들로 만원이다. 해변마다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도 많다.

호주 원주민 말로 “아름다운 물을 바라본다”라는 뜻을 가진 '타롱가' 동물원에서는 진기한 동물들이 많다. 유칼리나무에 매달려 양증맞게 움직이는 코알라는 살아있는 작은 곰인형같다. 일생의 대부분을 유칼리나무 위에서 사는 동물로 물을 전혀 먹지 않는 신기한 면을 가지고 있다. 대신 수분은 유칼리 나뭇잎과 줄기에서 섭취한다. 기이한 일이지만 호주에는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류가 없다. 대신 다른 대륙에서는 거의 멸종된 동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캥거루이다. 유대류에 속하며 새끼를 배 주머니에서 키우는 모성애가 강한 동물이다.

다링 하버 곁에 있는 시드니 수족관은 참으로 흥미로운 곳이었다. 이곳에선 성인 남자보다도 큰 상어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다. 살아있는 상어의 날카로운 눈과 치아를 처음으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 신기했다. 어스름이 도시를 적실 때 독특한 면을 보여주는 곳은 킹스크로스이다. 유명한 환락가인 이곳에선 스트립쇼를 몇 시간이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로변 양옆에는 나이트클럽·선술집·약국·상점 등이 뒤섞여 있다. 부산하계 바다 위를 오가는 선박들, 오페라하우스의 흰 지붕, 시드니 수족관의 거대한 상어, 드넓은 녹색공원과 질푸른 바다 등 아름다운 시드니를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귀국 후에도 한동안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간다. [7]

▼ 기하학적인 건축미로 아름다움을 더하는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다.

